

## 기허 영규와 의승 사찰\*

한상길\*\*

### • 목 차 •

#### I. 머리말

#### II. 기허 영규와 의승 사찰

1. 공주 갑사와 담양 서봉사
2. 금산 보석사
3. 청주 안심사
4. 옥천 가산사

#### III. 기허 영규와 의승 사찰의 위상

#### IV. 맺음말

---

\* 이 논문은 대한불교조계종 미래본부 불교사회연구소에서 2024년 10월 24일 주최한 호국불교연구 1차 학술세미나 「설화로 보는 영규대사와 800의승」에서 발표하고, 수정·보완함.

\*\*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부교수.

© 『大覺思想』 제42집 (2024년 12월), pp.135-168.

## 한글요약

기허당(騎虛堂) 영규(靈圭)는 임진왜란 당시 최초로 의승(義僧)을 일으켰다. 대사의 의승군은 1592년 7월 10일 1차 금산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다시 8월 1일 청주전투에서 왜적을 물리쳤다. 그러나 8월 18일 2차 금산전투에서 순국하고 말았다. 출가수행자의 신분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의승을 일으켜 혁혁한 공을 세웠으나, 역사에 등장한 지 불과 40일 만에 삶을 마감하였다. 이후 영규를 추모하는 여러 비석이 건립되고, 추모·제향이 잇따랐다. 이 과정에서 그에 관한 여러 기록이 산출되었는데, 대부분 영웅전과 같은 구전과 설화적인 내용들이다. 출생과 출가, 행장 등에 관한 기록이 일절 전하지 않는 현실에서 백성들은 영웅적인 무용담을 만들어냈다. 이 구전 설화를 비문에 채록하고, 비문을 본 사람들이 다시 과장, 윤색하면서 새로운 설화를 만들어 낸 결과였다.

이 과정에서 영규는 출가수행자였음에도 그에게 불교는 온데간데없고, 유교적 충의와 기개를 지닌 인물로 규정되었다. 영규에 관한 평가는 영규 혼자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그를 따랐던 이름조차 전하지 않는 8백명 이상의 의승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영규의 생애와 활동에 관한 실체적인 조명이 필요하다. 그 일환으로 그가 수행하면서 머물거나, 의승으로 주둔한 사찰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설과 설화로 점철된 그의 생애를 사실적으로 가늠해 보고자 한다. 그 대상은 공주의 갑사와 담양의 서봉사, 금산의 보석사, 청주의 안심사, 옥천의 가산사 등이다.

## 주제어

기허 영규, 사명 유정, 의승장, 의승군, 갑사, 보석사, 가산사, 안심사, 칠백의총

## I. 머리말

기허당(騎虛堂) 영규(靈圭, ?~1592)는 임진왜란 당시 최초로 의승(義僧)을 일으킨 인물이다. 영규의 의승군은 1592년 7월 10일 1차 금산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다시 8월 1일 청주전투에서 왜적을 물리쳤다. 그러나 8월 18일 2차 금산전투에서 순국하고 말았다. 출가수행자의 신분으로 나라를 구하기 위해 의승을 일으켜 혁혁한 공을 세웠으나, 역사에 등장한 지 불과 40일 만에 삶을 마감하였다. 이후 그를 추모하는 여러 비석이 건립되고, 추모·제향이 잇따랐다.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헌신한 선조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예는 후손의 도리이다. 이 과정에서 영규에 관한 여러 기록이 산출되었는데, 대부분 영웅전과 같은 구전과 설화적인 내용들이다. 출생과 출가, 행장 등에 관한 기록이 일절 전하지 않는 현실에서 백성들은 신이(神異)하고, 영웅적인 무용담을 만들어 냈다. 이 구전 설화를 비문에 채록하고, 비문을 본 사람들이 다시 과장, 윤색하면서 새로운 설화를 만들어 낸 결과였다.

이 과정에서 영규는 출가수행자였음에도 그에게 불교는 온데간데없고, 유교적 충의와 기개를 지닌 인물로 규정되었다. 영규에 관한 평가는 영규 혼자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는다. 그를 따랐던 이름조차 전하지 않는 8백 명 이상의 의승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임진왜란을 맞아 구국에 투신한 의승은 어렵잡아 1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시기에 따라 혹은 지역에 따라 결집과 해산을 반복하였기 때문에 정확한 추산은 어렵다. 다만 영규 휘하의 8백여 명, 평양전투에 참여한 사명당 휘하의 5천 명, 행주대첩의 뇌묵 처영(雷默處英) 휘하 1천 명, 의승장 홍정(弘靖)과 성정(性靖) 휘하의 충청도 각 1천여 명, 진주전투에 투신한 인준(印俊) 휘하의 2백여 명, 파사성을 수축한 의엄(義嚴) 휘하의 1백 명, 이순신(李舜臣) 수군에 참여한 의승수군 6백여 명, 구례 화엄사(華嚴

寺)의 수백 명, 은해사(銀海寺) 산중의 수백 명<sup>1)</sup> 정도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이다. 이 많은 이들이 나라의 운명을 지키기 위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헌신했던 소중한 가치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의승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파악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생각한다. 그 한 방법으로 영규에 관한 실체적 사실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 등장하는 여러 의승 사찰의 존재를 이해하고자 한다.

## II. 기허 영규와 의승 사찰

기허 영규에 관한 기록은 대체로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선조실록』과 『선조수정실록』 등의 사서류, 두 번째는 충렬원기(忠烈院記), 순의비명(殉義碑銘), 기적비(紀蹟碑) 등의 금석문류, 그리고 세 번째는 사찰의 사적기와 개인 문집의 단편 기록, 찬시(讚詩) 등의 사찬(私撰)류이다. 본고는 이러한 다양한 자료에 나타나는 영규와 관련한 사찰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영규의 활동 기록은 1592년 7월 의승으로 투신하여 그해 8월 18일 입적하기까지의 2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에 집중되어 있다. 공주 출신이지만 출생 시기나 출가 시기 등 많은 사실이 미상이다.<sup>2)</sup> 그동안 선학들의 노력으로 의승 활동기의 자세한

1) “이때 낮에는 숲속에 숨어있고 밤에는 절[冷泉寺]에 들어갔다. 각자 피를 뿜으며 의기를 격발하니 이에 호응하여 따르는 자가 수백 명이었고, 그중 승도가 반이 되었다.” 1592년 4월 최응사(崔應泗, 1520~1612)가 쓴 일기의 내용이다. 『유정집(柳亭集)』, 유정 최응사 지음, 번역 김종진, 감수 중화법타, 민족사, 2024, p.131. 이 책에는 의승에 관한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다. “1593년 2월. 겨울에 대구에 남아있던 왜군을 공격하였다. 관군과 의병, 승졸(僧卒)을 합해 2만 명인데, 와촌(瓦村)에 주둔하였으나 진격하고 방어하기가 불리하였다고 하였다.” p.132.

2) 영규는 19세에 출가 삭발하였다는 기록도 있다.

任玉鉉, 「壬辰義兵僧將福國祐世騎虛堂大禪師一簋靈圭事實記」, 『甲寺事蹟始

사실이 규명되었고,<sup>3)</sup> 구국의 위인으로 추모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강조되었다. ‘칠백의충’의 의사(義士)들과 함께 순국하였지만, 영규에 대한 추모와 선양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영규의 생애와 활동에 관한 다각적인 조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일환으로 그가 수행하면서 머물거나, 의승으로 주둔한 사찰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전설과 설화로 점철된 그의 생애를 실체적으로 가늠해 보고자 한다. 그 대상은 공주의 갑사(岬寺)와 담양의 서봉사(瑞峯寺), 금산의 보석사(寶石寺), 청주의 안심사(安心寺), 옥천의 가산사(佳山寺) 등 5개 사찰이다.<sup>4)</sup>

---

終記』(1887). 동국대학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https://kab.c.dongguk.edu/viewer/view?dataId=ABC\\_NC\\_08907\\_0001&imgId=ABC\\_NC\\_08907\\_0001\\_0001](https://kab.c.dongguk.edu/viewer/view?dataId=ABC_NC_08907_0001&imgId=ABC_NC_08907_0001_0001)>.

- 김성순, 「갑사 사적을 통해 본 의병장 영규에 대한 두 갈래 시선」, 『불교문예연구』 14,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 2019, pp.276-280.
- 3) 영규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 김승호, 「임난시 승장의 설화전승 양상 - 영규대사를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36, 동악어문학회, 2000.
- 강현모, 「영규대사 설화의 연구 - 설화의 지역적 전승양상과 서사문법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31, 한민족문화학회, 2009.
- 강현모, 『기허당 영규대사의 서사전승 연구』, 역락, 2013.
- 이철현, 「문헌에 나타난 영규대사의 생애와 활동」, 『갑사 표충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5.
- 황인규, 「의승장 기허 영규와 의승의 봉기 - 특히 일본 중군승과 의승의 실체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66, 동양고전학회, 2017.
- 김성순, 「갑사사적을 통해 본 의병장 영규에 대한 두 갈래 시선」, 앞의 글.
- 김상일, 「조선 후기 사대부의 시문에 보이는 영규대사의 정체성과 형상」, 『태동고전연구』 47, 태동고전연구소, 2021.
- 4) 5개 사찰 외에 영규는 공주 영은사(靈隱寺)와 낙가(산)사(洛迦(山)寺), 문경 혜국사(惠國寺)에도 주석하였다고 하는데, 이 사찰들과 의승 활동과의 관련 기록은 찾지 못하였다.

## 1. 공주 갑사와 담양 서봉사

영규는 공주 판치(板峙) 출신으로 갑사 청련암에서 출가하였다. 그의 위업을 전하는 『선조수정실록』 1592년 8월 1일의 기사에 ‘공주 산사’가 등장한다.

승려 영규는 당초 공주(公州) 산사(山寺)에 있었는데, 목사 허욱(許頊)이 불러 승장(僧將)을 삼았으나 하려 하지 않다가 강권한 뒤에야 응하였다. 일단 무리를 모아 군대를 만들고 나서는 오직 조헌(趙憲)만을 따라 진퇴하였다. 사람됨이 장건(壯健)하고, 키가 보통 사람의 갑절이나 되었으며 지략과 계책이 있고, 많은 무리를 잘 부렸다. 청주의 전투도 실로 영규가 지휘하고 계획한 것이었다. 조헌이 굳이 고집하면서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자, 틀림없이 패하리라는 것을 알고 권율(權慄)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래도 군사를 합쳐 진군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의열(義烈)로 세상에 일컬어졌으니, 불교가 있는 이래 일찍이 없었던 일이었다. 지중추부사를 추증(追贈)하였다[그의 속성은 유실되어 향리에도 전해지지 않았다.].<sup>5)</sup>

이 짧은 기사가 영규의 활동과 위상을 가장 잘 전하는 기록이다. 또한 역사서에 전하는 영규에 관한 가장 긴 내용이다. 허욱(1548~1618)이 ‘공주 산사’, 즉 갑사의 영규를 승장으로 삼았다는 서술은 오류이지만,<sup>6)</sup> 이하의 내용은 그의 활동과 용모, 역량, 후대의 평가 등을 올바르게 전한다.<sup>7)</sup> 즉 영규는 “사람됨이 장건(壯健)하고, 키가 보통 사람의

5) 『선조수정실록』, 선조 25년 8월 1일.

6) 허욱이 충청도 관찰사로 임명된 것은 영규가 순국한 이후인 1592년 9월 9일이었다. 『선조실록』, 선조 25년 9월 9일.

7) 이 기록은 다음과 같은 『선조실록』, 선조 25년 9월 12일의 기사를 보완한 것이다. “[영규는 공주(公州) 사람이다] 본 주의 목사 허욱이 수하로 불러와서 아병(牙兵)을 만들었는데 자못 적을 토벌할 뜻을 가지고 있었다. 본도의 순찰사에게 말하여 도내의 승군을 선발, 영규를 장수로 삼아 청주의 왜적을 토벌하였다. 의병장 조헌(趙憲)이 협동하여 군사를 전진시키자, 청주

갑절이나 되었으며 지략과 계책이 있고, 많은 무리를 잘 부렸다.”라고 한다. 이와 유사한 평가가 또 있다. 9월 11일 비변사가 선조에게 보고하기를,

승 영규가 의(義)를 분발하여 스스로 승도들을 많이 모아 성 밑으로 진격하였는데 제일 먼저 돌입하여 마침내는 청주성을 공략하였습니다. 그가 호령하는 것을 보면 바람이 이는 듯하여 그 수하에 감히 어기는 자가 없었고 질타하는 소리에 1천 명의 의승들이 돌진, 제군(諸軍)이 이들을 믿고 두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큰 무공만이 아름다울 뿐 아니라 사람 됨됨이와 재기도 심상치 않으니, 우선 상을 주고 환속하게 하소서.<sup>8)</sup>

라고 하였다. 이 보다 약 한 달 전인 8월 18일, 영규는 금산성 전투에서 이미 사망하였다. 그러나 비변사에서는 미처 알지 못하고 8월 1일의 청주성 전투에서 공을 세운 영규에게 포상할 것을 주청하는 기사이다. 이처럼 실록의 영규에 대한 평가는 공통적으로 “지략과 계략을 두루 갖추었고, 수하를 잘 인솔하는 인물”이라고 하였다.

영규의 행장과 의승 활동에 관한 이야기는 대부분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찬술되었다. 즉 영규는 갑사 출신이다. 갑사에서 수행하던 영규는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이전에 이미 침략을 예견하였다고 한다.

#### 영규비(靈圭碑)

섬 오랑캐가 반역하는 것 내년에 있을 터.  
요망한 기운 하늘 덮은 것 하늘의 경고라 했는데  
절간에서 비웃어 넘기며 대사를 미치광이로 여겼다

의 왜적이 도망쳤다. 영규와 조현이 군사를 옮겨 금산(錦山)의 왜적을 치다가 모두 싸움터에서 죽었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매우 애석해하고 또 그들의 의기를 장하게 여기고 있다.”

8) 『선조실록』, 선조 25년 9월 11일.

풍신수길(風神雨師)이 바다 건너자 대사 비로소 놀랐네.  
 ... 중략 ...  
 전장에서 흘린 피 전단의 맑은 향과 섞였네.  
 임금 은혜 부처 은혜 따지지 않으며  
 조공(趙公, 趙憲) 감동시킨 단심(丹心) 사람들 향해 비추었지.

금산에 근심스러운 비 내리고 참혹한 구름 생겼으니  
 칠백(七百) 의사(義士) 유해(遺骸)가 높은 무덤 이루었네.  
 그 속에 구슬 하나 남몰래 빛을 발하니  
 만고(萬古)토록 불멸(不滅)한 대사의 충절(忠節)이여라.  
 옛 고을(古邑)에 그 누가 훌륭한 말씀 새겼나.<sup>9)</sup>

이인상(李麟祥, 1710~1760)이 영규(英圭)의 비를 보고 지은 시이다. 영규는 전쟁 발발 이전에 이미 일본의 침략 야욕을 간파하고 있었다고 한다. 정규한(鄭奎漢, 1751~1824)이 찬한 「기허대사충렬원기(騎虛大師忠烈院記)」에 자세한 이야기가 전한다.

아! 대사는 일찍이 계룡산 청련암(靑蓮庵)에서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으며, 서산 대법사에게 불도를 배워서 하늘이 낸 충의와 남다른 지혜와 용맹으로 일찍이 우러러 관찰하고 굽어살피서 적들의 변란을 예견하고 매양 나무 지팡이로 무예를 익히면서 일찍이 말하기를, “내가 비록 불문에 몸을 의탁하고 산중에 거하지만, 솔잎과 나물을 먹는 것도 모두 나라의 은혜가 아님이 없다. 내 마땅히 하찮은 티끌과 물방울만큼이라도 나라의 은혜를 갚는 날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큰 난리를 만나게 되자 앞장서 의를 일으켜 군대를 일으키고자 하였으나, 여러 승도들이 따르지 않았다. 대사가 드디어 주야로 호곡하여 3일 동안 그치지 않으니 여러 승도들이 의로움에 감동하여 따르지 않음이 없었다. 대사가 이에 계룡산에서 기병하여 동쪽으로 가서 청주에 다다랐고, 다시 동쪽으로 가서 옥천에 이르렀으며, 다시 동남쪽으로 가서 금산에 이르렀는데, 적을 만나면 반드시 이겨 적군이 병사

9) 「靈圭碑」, 『凌壺集』 권2, 『갑사 표충원』, 앞의 책, pp.188-190.

를 추가해 포위하니, 적들은 많고 아군은 적어서 유린당하게 되었는데 대사에서 빈주먹으로 적군의 위장을 찢고, 손수 적을 죽인 것이 부지기수였다. 죽음에 이르러 북쪽으로 임금 계신 대궐을 우러러 통곡하며 두 번 절하고 죽었다. 오호라! 장렬하도다.<sup>10)</sup>

영규는 청련암에서 삭발 출가하였는데, 당시 이미 변란을 예견하고 나무 지팡이로 무예를 익혔다고 한다.

청련암에서 출가하여 계룡산에서 수행하던 영규는 이후 담양(당시의 지명은 昌平) 서봉사(瑞峯寺)<sup>11)</sup>로 수행처를 옮겼다. 1592년 5월 8일, 유팽로(柳彭老, 1554~1592)의 일기에 영규가 등장한다.

해 질 무렵 서봉사에 들어가 승려를 불러 “영규대사가 요사이 어느 절에 계시느냐?”라고 물었다. 승려가 대답하기를 “올해 중[中年]에 계룡산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 절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공이 영규대사를 보지 못함을 탄식할 뿐이었다. (이보다 앞서, 필자) 올해 중에 한 승려가 문 앞에 와서 걸식을 하자 공이 나가 방으로 맞이하여 크게 기뻐하며 여러 날을 함께 이야기 나누었다. 헤어질 때 시를 지어 주었고, 그 후 여러 번 서봉사에 가서 생사를 함께 하기를 약속하였다.<sup>12)</sup>

유팽로는 1592년 담양에서 6백여 명을 이끌고 의병으로 궤기하여 고경명(高敬命, 1533~1592)의 군사와 합세, 금산전투에 참여하였다가 순국하였다. 당시 유팽로를 수행하였던 김충남(金忠男)이 그의 100일간의 행적을 꼼꼼하게 일기로 기록하였다.<sup>13)</sup> 유팽로는 1588년 과거에

10) 「騎虛大師忠烈院記」, 『華山集』 권5. 『갑사 표충원』, 앞의 책, pp.107-111.

11) 서봉사는 1895년에 편찬한 『湖南邑誌』에 “(창평)현의 남쪽 30리 무등산 아래에 있는데 경술년(1850년) 화재로 소실되었다가 洞口에 별도로 攝淸閣을 중건하였다.”라고 하였다. 『호남읍지』 9책, 「昌平」

12) 유팽로, 『月波集』 권3, 부록, 「일기 5월 6일」; 『갑사 표충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5, pp.173-174.

13) 조원래, 「秋成倡義와 사료 『月波集』」, 『임진왜란과 유팽로의 의병운동』,

급제하였으나 벼슬에 뜻을 두지 않고 담양 옥과현에서 살았다. 이때 서봉사의 영규를 만났고, 두 사람은 의기가 투합하여 여러 날을 함께 지냈다고 한다. 헤어지며 한 편의 시를 지어 주었다.

#### 영규선사에게 드림

스님의 기품이 보통 사람 재주와 다르니  
 재밌어 얻으러 찾아온 건 예사롭지 않음이라.  
 사문이 석장을 날려 나아가  
 몇 번이나 사람들 번뇌를 밝아주었던가.  
 팔도에 인과응보를 전하러 목탁을 치며 돌고  
 계절을 잊고 갈대 재를 날리네.  
 예로부터 흥망은 작은 일에 많다며  
 나를 위해 입 열기를 아끼지 않는구나.<sup>14)</sup>

이 기록이 영규의 의승 투신 이전의 유일한 자료이다. 영규에 관한 자료는 한결같이 ‘구국을 위해 목숨을 던진 의승’이라는 사실에 입각해서 서술한다. 그러나 이 시는 의승이 아니라 출가사문 영규의 본모습을 사실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영규는 “보통 사람과 다른 기품을 지녔고, 팔도에 인과응보의 불법을 전하러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번뇌를 밝아주는 선사”라고 하였다. 앞서 본 『선조수정실록』의 “사람됨이 장건(壯健)하고, 키가 보통 사람의 갑절이나 되었으며 지략과 계책이 있고, 많은 무리를 잘 부렸다.”라는 평가를 덧붙여 아우르면 영규의 온전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유헥로의 일기와 시를 통해 두 사람은 동년배라고 짐작할 수 있다.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의기투합하여 여러

---

곡성군, 2014, p.280.

14) 유헥로, 『月波集』 권3, 부록, 「일기 5월 6일」; 『갑사 표충원』, 앞의 책, p.173.

날을 함께 지냈고, 이후 서봉사에서 자주 만나 생사를 함께하기를 약속하였다는 사실에서 동년배들의 우정을 짐작한다. 당시 유평로는 38세였다.

영규는 1592년 초 서봉사에서 갑사로 갔다. 4월에 임진왜란이 시작되자, 5월 갑사에서 의승을 결집하였다. 후대의 여러 기록에서는 그가 갑사에 있으면서 전쟁을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고 한다.

승 영규, 호는 기허당이다. 일찍이 천상(天象)을 우러러보고 중국에 난리가 났음을 알아서, 시를 지어 “반은 모래밭에 반은 구름에 들어갔다.”라고 읊었다. “반은 모래밭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국난을 구하기 위해 달려가서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고자 한 것이고, “반은 구름에 들어갔다.”라는 것은 부처님이 살생을 하지 않도록 경계하셨기 때문이다. 밤새워 깊이 생각하고 이윽고 말하기를, “한 그릇의 밥과 국도 모두 우리 임금님의 은택이다.”라고 하고 마침내 무예를 익혔다. 나무를 깎아 병장기를 만들고 낫 수천 개를 제조하였으며, 용맹한 승려 500명을 모집하고 기다리길 10년이 지나지 않아 왜적이 과연 쳐들어왔다. 사찰의 승려들이 흩어져 가고자 하니, 영규가 즉시 공구(供具)를 성대히 하고 의병을 일으켜야 하는 형세를 깨우치며 3주 야간을 묵 놓아 슬피 우니, 모든 승려가 감동하여 같이 죽기를 허락하였다. 다시 천여 명을 얻어 갑사에서 기병하였다.<sup>15)</sup>

성해응(成海應, 1760~1839)은 「금산순절제신전(錦山殉節諸臣傳)」에서 “전쟁 10년 전부터 대사는 무예를 익히고 낫 수천 개로 무기를 만들었으며 5백 명의 의승을 미리 결집하여 대비하였다.”라고 하였다. 전쟁이 발발하기 10년 전에 미리 의승을 결집하여 무기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는 사실과 거리가 먼 후대의 윤색으로 보인다. 영규에 관한 비명과 기명(記銘), 기문들은 그의 사후 백여 년이 훨씬 지난 뒤에 작성되면서 세간에 전하는 이야기를 검증 없이 수록하거나 때로는 과장

15) 「錦山殉節諸臣傳」, 『研經齋全集』 권60, 蘭室史料 3. 『갑사 표충원』, 앞의 책, pp.174-178.

해서 서술한 경우가 적지 않다.<sup>16)</sup> 1840년에 찬술한 「의병승장」 비문에서는 “공주의 청련암에 주석하였는데, 신력이 있었고 선장(禪杖)으로 무예를 연마하기를 좋아하였다.”<sup>17)</sup>고 하여 주장자를 무기로 둔갑시킬 정도였다.

연암(燕巖) 박지원(朴趾源, 1737~1805)은 영규의 의승 창의를 의병과 비교하여 사실 그대로 평가하였다. 즉 고경명(高敬命)과 김천일(金千鎰), 최경회(崔慶會), 임계영(任啓英), 김덕령(金德齡), 곽재우(郭再祐) 등의 의병장들은 모두 대부(大夫)였고, 나머지 사람들도 세신(世臣)의 후예들이라고 하였다. 그런데 “영규는 승려로서, 토지나 병갑(兵甲)을 지닌 것도 아니고 부신(符信)을 발급하거나 호령을 받을 처지도 아니었건만, 마침내 그 무리를 이끌고 쫓기하였다.”<sup>18)</sup>라고 하였다. 실

16) 영규가 서산 휴정의 제자라는 이야기도 이러한 사례 중의 하나이다. 휴정과 영규의 사제관계는 17세기 말 이후 영규를 서산, 사명과 함께 호국의 3대 승장으로 추모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한다. 김상일, 「조선 후기 사대부의 시문에 보이는 영규대사의 정체성과 형상」, 앞의 글, p.11.

17) 趙寅永, 「靈臺大師殉義碑銘并序」, 『雲石遺稿』 권12, 「義兵僧將」, 『갑사 표충원』, 앞의 책, p.165.

18) “이때를 당하여 고경명(高敬命)과 김천일(金千鎰)은 ‘의(義)’를 내걸고 민병(民兵)을 일으켜 초토사(招討使)가 되었으며, 최경회(崔慶會)는 송골매 ‘골(鶻)’자로 군기(軍旗)를 표(標)하고, 임계영(任啓英)은 범 ‘호(虎)’자로 군기를 표하고, 김덕령(金德齡)은 ‘초승(超乘)’으로 휘장(徽章)을 만들고, 곽재우(郭再祐)는 ‘홍의(紅衣)’로 군을 구별 지었는데, 이들은 모두 대부(大夫)였으며, 나머지 사람들도 세신(世臣)의 후예들이었다. 그런데 영규는 승려로서, 토지나 병갑(兵甲)을 지닌 것도 아니고 부신(符信)을 발급하거나 호령을 받을 처지도 아니었건만, 마침내 그 무리를 이끌고 쫓기하였다. 이때를 당하여 의를 내세워 쫓기한 이들이 10여 진(陣)이었다. 그들은 혹 제 고장을 스스로 호위하기도 하고, 혹 병마절도사의 지휘를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고, 혹 연수(連帥; 관찰사)의 죄를 성토했으며 각 고을에 격문을 돌리기도 했는데, 오직 문열공 조현의 군중만은 사자(使者)를 보내 스스로 조정과 연락을 취했으니, 그 의(義)가 특히 정대하였다. 여기에서 식자들은 영규의 의(義)가 동맹자를 얻었음을 알았다. 절도사 박홍(朴泓)은 군사를 버리고 달아났으며, 이각(李珪)과 조대곤(曹大坤)은 군량 10여 만 가마를 불태우고 정기(旌旗)를 땅에 묻어 버리고 적을 만

학 사상가다운 사실적 설명이다. 즉 박지원은 양반사대부 사회의 지배층인 대부나 세신의 후예가 아닌 일개 승려가 창의하여 “한 치의 무기나 한 말의 군량도 지닌 처지가 아니었던만, 마침내 그 무리를 이끌고 힘껏 싸웠다.”라고 칭송하였다.

## 2. 금산 보석사

영규는 갑사에서 수백 명의 의승을 이끌고 7월 7일 금산에 도착하였다.

해 질 무렵 성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김충남(金忠男)이 급히 보고하기를 “전에 말하던 영규대사가 승려 수백 명을 이끌고 왔습니다.”라고 말했다. 공[유팽로]이 곧바로 나가서 맞이하고는 상장군[高敬命]에게 말하기를 “영규가 온 것은 반드시 하늘이 돕는 것입니다.”라고 말했다.<sup>19)</sup>

이보다 앞서 유팽로는 왜란이 일어나자, 그해 5월 8일 가산사로 가 영규를 찾았다. 생사를 맹약한 사이였으므로 의병 궤기를 권하기 위해 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규는 이미 갑사로 떠난 후라 만나지 못했다. 이후 유팽로는 의병을 이끌고 담양에서 고경명의 군사와 합세

---

나자 먼저 도망했으며, 부사(府使) 서예원(徐禮元)과 군수 이유검(李惟儉)은 성을 버리고 달아났으며, 관찰사 이광(李洸)과 윤선각(尹先覺)은 10여 만의 군사를 지니고도 왕을 호위하지 못했고, 왕이 용만(龍灣; 義州)으로 거둥하였으나 힘을 다해 적을 토벌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영규는 승려로서, 한 치의 무기나 한 말의 군량도 지닌 처지가 아니었던만, 마침내 그 무리를 이끌고 힘껏 싸웠다. 문열공의 군사가 청주성의 동문을 포위하자 영규는 성의 서문에서 전투를 벌여 먼저 성에 올라가니, 모두가 일당백으로 싸웠다. 여기에서 식자들은 영규의 용맹함이 반드시 그를 죽음으로 이끌리라는 것을 알았다.” 『靈圭碑』, 朴趾源, 『燕巖集』 권10, 別集, <菴畫溪蒐逸>.

19) 유팽로, 『月波集』 앞의 책, 「일기 7월 7일」. 『갑사 표충원』, 앞의 책, p.174.

하였다가, 금산성을 수복하기 위해 금산에 주둔하고 있었다. 이때 영규가 의승 수백 명을 이끌고 도착한 것이다. 7월 9일 마침내 제1차 금산 전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10일, 악천후 속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다가 왜군의 반격에 전세가 기울면서 유팽로와 고경명 등은 모두 전사하고 말았다. 영규의 의승은 설욕을 다짐하며 물러나야만 했다. 이 무렵 의승의 주둔지가 보석사(寶石寺)였다고 전한다. 영규는 갑사를 떠나 7월 7일 금산에 도착하였고, 9일과 10일, 이틀간의 치열한 전투에 참여하였다. 안타깝게도 유팽로와 고경명 등 수백 명의 희생을 치렀지만, 영규와 의승들은 무사하였다. 이때 의승들의 주둔지가 보석사였던 것 같다. 영규는 7월 11일 이후 청주에서 갑사로 돌아가 20일 전까지 의승을 정비하였다. 청주성을 탈환하기 위해 7월 20일 청주에 도착하여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8월 2일 새벽 마침내 왜적들이 퇴각하였다. 8월 10일 이후 영규는 2차 금산전투를 감행하기 위해 유성에서 조현의 의병과 합류하였다.

8월 10일 무렵, 전라도 순찰사가 금산(鎭山)의 적을 쳐서 이기지 못하자, 영규를 선봉으로 삼고자 하기에 나는 이를 승낙하였다. 영규는 그 군사를 거느리고 유성(儒城)에 나아가서 진을 쳤다. 조 제독[趙憲]은 일찍이 이달 1일 다시 싸울 때, 영규의 진으로 가서 군사 수백 명을 내어 싸움을 도왔다. 이때 영규가 쓸 만한 사람임을 알고 유성으로 따라가서 영규와 진영을 합하고, 그를 독려하여 함께 금산으로 들어갔다.

영규는 말하기를, “전라도 순찰사가 군사 수만 명을 거느리고 바야흐로 진격하려 하면서 나에게 선봉이 되어 주기를 청하였으나 시기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니, 경솔히 나갈 수는 없습니다.”라고 하고, 조현에게 순찰사와 날짜를 약속하도록 권했다. 그런데 회보가 오기도 전에 조현은 적을 속히 쳐야 한다고 강경히 고집하면서 그 군사를 거느리고 먼저 금산으로 들어가니, 영규도 마지못해 따랐다. 그의 부하들이 말하기를, “반드시 패할 것이 분명하니 가지 마소서.”라고 했으나, 영규는 말하기를, “가부를 의논할 때는 그래도 그의 말을 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이 이미 먼저 갔으니, 내

가 만일 그를 따르지 않는다면 누가 구원하겠느냐?”라며 따라갔다. 이때는 8월 17일[18일, 필자]이었다. 영규가 조현과 금산 5리 안에서 진을 연결해 치고 있노라니, 적이 크게 몰려와 조현의 진이 먼저 함락되고, 영규의 진도 곧이어 함락되었다. 이 싸움에서 죽은 우리 군사가 10명 중에 8~9명이나 되었고, 적도 죽은 자가 많았다. 조현이 만일 영규의 말을 들었더라면 어찌 이러한 실패가 있었으랴. 원통하고 원통한 일이다.

군사가 패한 이튿날 조현의 군관이 권순찰사[權樞]가 날짜 약속한 글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보였다. 그러나 때가 이미 지났으니 말한들 무엇하리오. 청주의 적을 몰아냈다는 보고가 의주(義州)에 이르자, 조정에서는 이를 가상히 여겨 영규에게 당상관을 제수하고 옷감까지 보냈으나, 영규는 이미 죽어서 받지 못했다. 이 뒤로 승병들이 곳곳에서 계속 일어났으니, 실로 영규가 불러일으킨 것이었다.<sup>20)</sup>

이때도 영규와 의승들은 보석사에 주둔하였다. 8월 17일 그와 의승군이 선봉을 맡아 금산성 동쪽의 경양산과 연근평에 진을 구축하였다. 8월 18일 금산성 총공격을 감행하였으나 조현과 영규 등은 순국하고 말았다.

1840년<sup>21)</sup> 조인영(趙寅永, 1782~1850)이 찬한 '의병승장비'(「영규대사순의비명병서(靈圭大師殉義碑銘并序)」)가 보석사 입구에 건립되었다. 이 비는 보석사의 선승 태연(太演)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당시 태연은 조인영에게 의뢰한 비문이 늦어지자, 이를 재촉하기 위해 한양으로 찾아가 시를 지어 전하였다. 조인영은 「금산의 선승 태연(太演)이 순국

20) 『聞韶漫錄』. 『갑사 표충원』, 앞의 책, pp.217-218.

21) 비의 측면에는 '崇禎紀元後四己亥五月日昌寧尉金炳疇書'라고 하여 기해년 즉 1839년 5월에 썼다[書]는 기록이 있다. 이는 비문의 내용이 아니라 비의 제목 '義兵僧將' 글씨를 썼다는 말이다. 조인영이 쓴 비문 말미에는 '上之六年 庚子 流月 上澣' 즉 1840년 6월에 썼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인영은 1839년 5월 이전까지 비문을 쓰기로 약속했으나, 1년 이상 늦은 1840년 6월에서야 완성한 듯하다. 한편 비각의 현판 '義禪閣'도 김병주가 쓴 것으로 추정된다.

한 영규대사의 비문을 요청하기 위해 도성에 들어와 머물렀는데, 시를 지어 재촉하기에 그 시에 차운하다<sup>22)</sup>라는 시를 지어 화답하였다.

이후 금산군수 조취영(趙取永), 공주목사 조헌영(趙獻永) 등이 비문을 세우고, 비각 의선각(毅禪閣)<sup>23)</sup>을 지었다. 보석사의 승도들은 의선각의 창건에 참여하였다. 창건화주(創建化主)는 낙봉 대인(樂峯大仁), 춘담 태연(春潭太演)이었다. 춘담 태연은 조인영에게 비문을 재촉하기 위해 한양을 찾아가던 인물이다. 춘파 재침(春坡載沾)과 벽담 쾌일(碧潭快一), 정능 두신(正能斗信)은 도감을 맡았다.<sup>24)</sup>

한편 설화 속에 전하는 보석사는 영규가 2차 금산전투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후퇴하다가 순국한 곳으로 등장한다.<sup>25)</sup> 금산성에서 부상을 입고, 보석사까지 피신하였다는 내용이지만 설화적 이야기이다. 보석사와 관련한 영규의 설화는 절이 두 차례의 금산전투 당시 수백 명의 의승들과 함께 주둔했던 곳이라는 사실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추송하기 위해 보석사의 승도들이 앞장서 순의비를 건립했던 것

22) 『雲石遺稿』 권4, 詩, 「금산의 선승 태연(太演)이 순국한 영규대사의 비문을 요청하기 위해 도성에 들어와 머물렀는데, 시를 지어 재촉하기에 그 시에 차운하다(錦山禪太演 爲請靈圭大師殉義碑銘 來留都門 以詩相促 走次其韻)」. “스님이 무슨 일로 고달프게 찾아오셨나. 혜업의 문연이 지금 나를 부끄럽게 하네. 석장 깊고 날아오니 오직 부처님의 얼굴이요. 붓잡아 아직 쓰지 못하니 노파의 마음이라. 연진은 오랜 시간 흘러 모래벌 싸늘 해졌고, 제전을 향화하는 영각은 깊고 깊어라. 허상 잡고서 실상을 찾으려 하니, 금강 물결 여전히 불평 소리 띠고 있으리.” 『갑사 표충원』, 앞의 책, pp.190-191.

23) 의선각은 일제강점기 일인들이 철거하였고, 비석은 땅에 묻었다. 광복 후 비석을 다시 세우고 비각을 새로 건립하였으나 ‘의선각’ 현판은 걸지 않았다. 이 의선각 현판은 현재 보석사에 있다. 절에서 새 건물을 지어 의선각 현판을 걸었다.

24) 趙寅永, 「靈圭大師殉義碑銘并序」, 『雲石遺稿』 권12, 「義兵僧將」, 『갑사 표충원』, 앞의 책, p.164.

25) 강현모, 「영규대사 설화의 연구 - 설화의 지역적 전승양상과 서사문법을 중심으로」, 앞의 글, pp.291-292.

이라 생각한다.

### 3. 청주 안심사

영규는 7월 10일 금산전투에서 퇴각하여 이후 감사로 귀환하였다. 이 무렵의 정황을 윤국형(尹國馨, 1543~1611)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난리 초에 내가 공주에 있었는데, 유생 신난수(申蘭秀)와 장덕개(張德蓋) 등이 찾아와서 말하기를, “연기(燕岐)에 속명이 정만억(鄭萬億)이라 하는 승려가 있는데, 적을 잘 치므로 사람들이 승장군(僧將軍)이라 불러 명성이 자자합니다.”라고 하고, 목사 허옥도 말하기를, “이 고을의 승려 영규가 자진해서 의병 모집에 응하며 말하기를, “만억이 매우 못한 사람이면서도 장군이란 이름을 얻었으니, 나도 중군(從軍)하리라.”라고 하고, 뜻을 같이하는 승려 9명을 데리고 적의 형세를 탐지해서 적을 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으니, 그 말을 취할 만합니다.”라고 하였다.

내가 곧 영규를 불러 보았더니, 매우 건장하기는 하나 별다른 지혜나 피는 없어 보였다. 그러나 녹록한 사람에 비할 바는 아니어서 한 방면을 방어하게 할 만은 하였다. 내가 시험 삼아 그가 탐지했다는 적의 형세를 물었으나 별로 공을 세울 만한 것은 없었다. 내가, “만일 그대에게 승군 약간 명을 준다면 그대는 이들을 거느리고 가서 적을 치겠소?”라고 했더니, 그는 기꺼이 승낙하였다. 이에 내포(內浦)의 승군 수천 명을 뽑아서 그에게 거느리게 하고, 승병패두(僧兵牌頭)라고 불렀다. 그는 열흘 동안에 대오를 정돈하여 청주 안심사(安心寺)로 나가 진을 쳤는데, 이 절은 고을에서 15리쯤 떨어진 곳이다. 그는 방어사 이옥(李沃)과 서로 성원이 되었다. 이옥은 당시 연기 동쪽에 있는 나루에 진을 치고 있었는데, 얼마 안 되어 영규가 서문(西門) 밖 빙고현(氷庫峴)으로 나가 진을 치니, 모두 세 개의 진이었다. 때때로 정예병을 내어 사면에서 적을 맞아 싸우니 적이 감히 방자하게 굴지 못했다. 이때는 임진년 7월 보름과 스무날 사이였다.

이달 (7월) 29일에 방어사와 이웃 고을 수령들이 영규와 함께 청주의 적

을 치기로 했는데, 모든 지휘는 나의 명을 들었다. 종일토록 싸웠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 이옥과 영규가 군사를 거두었기에, 나는 공주 목사를 시켜 이옥의 진으로 달려가서 경솔히 퇴군한 것을 책망하고, 곧 다시 싸움을 독려하도록 했다. 이리하여 8월 1일에 크게 싸워서 비록 적의 머리를 베는 공은 세우지 못했지만, 적도들이 화살과 총탄에 많이 맞아 그 형세가 매우 고립되었다. 이튿날 새벽에 적은 무리를 다 이끌고 도망갔다. 이 뒤로는 적들이 다시 와서 침범하지 않아 청주 경내가 편안하여 백성들은 곡식을 수확할 수가 있었다. 영규는 이 때문에 중외에 명성이 났다. … 중략 … 영규는 글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성명 정도만 조금 분별하였다.<sup>26)</sup>

윤국형은 당시 충청도 관찰사였지만, 고경명의 의병 활동을 방해하는 등 왜군의 침략을 제대로 방비하지 못했다. 여러 차례 사실을 왜곡하고 거짓으로 보고한 책임을 물어 관찰사에서 해임된 인물이다.<sup>27)</sup> 위의 기록에서도 사실과 다른 이야기가 여럿 등장하는데, 영규에 관한 왜곡된 이야기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영규는 정만역이라는 못난 승려가 승장군으로 명성을 떨치는 것을 보고 시기하여 의승 모집에 참여하였다. 건장하기는 하나 별다른 지혜나 피는 없어 보였다. 그가 탐지했다는 적의 형세를 물었으나 별로 공을 세울 만한 것은 없었다. 내가 내포의 의승 수천 명을 뽑아서 그에게 거느리게 하고, 승병패두(僧兵牌頭)라고 불렀다. 영규는 글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의 성명 정도만 조금 분별하였다.”

영규에 관해 전하는 여러 기록, 설화들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짓된 이야기들이다. 특히 마지막 구절, ‘글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성명만 구별할 정도’라는 표현이 어이없을 정도이다. 다행히 그의 이러한 거짓과 위선은 당시 질책을 받았고, 관직을 삭탈하는 문책으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러한 왜곡된 기록에서 영규에 관한 실체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

26) 尹國馨, 『聞韶漫錄』; 『갑사 표충원』, 앞의 책, pp.217-218.

27) 『선조수정실록』, 선조 25년 8월 1일.

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이다. 먼저 “영규는 열흘 동안에 대오를 정돈하여 청주 안심사(安心寺)로 나가 진을 쳤는데, 이 절은 고을에서 15리쯤 떨어진 곳이다.”라는 서술이다. 금산에서 갑사로 돌아온 영규가 열흘 동안 대오를 정비하였다는 때는 대략 7월 11일에서 20일 무렵이다. 즉 7월 20일 전후 영규는 의승을 이끌고 안심사에 도착하여 대열을 정비하였다. 이곳에서 영규는 “(청주성) 서문 밖 빙고현(氷庫峴)으로 나가 진을 치니, 모두 세 개의 진이었다. 때때로 정예병을 내어 사면에서 적을 맞아 싸우니, 적이 감히 방자하게 굴지 못했다. 이때는 임진년 7월 보름과 스무날 사이였다.”라고 하였다.

조헌(趙憲, 1544~1592)과 영규는 8월 1일 청주성 전면 공격을 감행하였다. 왜군은 공세에 밀려 성안으로 은거하였다가 다음 날 새벽 성에서 도망쳤다. 윤국형은 이날의 전투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달 (7월) 29일에 방어사[李沃]와 이웃 고을 수령들이 영규와 함께 청주의 적을 치기로 했는데, 모든 지휘는 나의 명을 들었다. 종일토록 싸웠으나 승부가 나지 않았다. 이윽과 영규가 군사를 거두었기에, 나는 공주 목사를 시켜 이윽의 진으로 달려가서 경솔히 퇴군한 것을 책망하고, 곧 다시 싸움을 독려하도록 했다. 이리하여 8월 1일에 크게 싸워서 비록 적의 머리를 베는 공은 세우지 못했지만, 적도들이 화살과 총탄에 많이 맞아 그 형세가 매우 고립되었다. 이튿날 새벽에 적은 무리를 다 이끌고 도망갔다. 이 뒤로는 적들이 다시 와서 침범하지 않아 청주 경내가 편안하여 백성들은 곡식을 수확할 수가 있었다. 영규는 이 때문에 중외에 명성이 났다.<sup>28)</sup>

이 기록 역시 사실과 다르다. 당시 청주방어사 이윽(李沃) 등의 관군은 잇따라 패퇴하여 연기지방에 있었고, 본인 윤국형 역시 전투에 임하지 않았다. 오직 영규의 의승 수백 명이 청주성 밖에서 일본군과 대치하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조헌은 의병을 이끌고 청주로 향하면서,

28) 『聞韶漫錄』. 『갑사 표충원』, 앞의 책, p.217.

이옥에게 적군을 함께 물리치자고 재촉하였으나 관군은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조헌과 이광륜(李光輪), 박춘무(朴春茂)의 의병만이 영규의 의승과 합세하여 이날 청주성을 공격한 것이다.<sup>29)</sup>

#### 4. 옥천 가산사

영규는 1592년 5월 갑사에서 의승을 모집하였다. 당시 의승의 숫자는 3백 명이었다고 한다.

신점(申點)이 아뢰기를, 영규라는 자가 있어 3백여 명을 불러 모아 “우리들이 일어난 것은 조정의 명령이 있어서가 아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나의 군대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하니, 승려들이 다투어 스스로 앞장서서 모이기를 거의 8백에 이르렀는데, 조헌과 함께 군사를 합하여 청주를 함락시킨 자가 바로 이 승려라고 합니다.<sup>30)</sup>

신점(1530~1601)은 1592년 사은사(謝恩使)로 명(明)에 파견되었다가 왜란이 발발하자, 명의 지원군 요동병(遼東兵) 3천 명의 파병을 이끌어낸 인물이다. 영규의 의승 규모에 대해서는 기록마다 달라 3백 명에서 1천 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런데 당시 거의 8백에 이른다는 신점의 보고는 상당히 신빙성이 높다. 즉 1592년 5월 의승 모집 초기에는 3백 명이었고, 7월 말의 청주전투에는 약 8백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과정에서 옥천의 가산사(佳山寺)가 등장한다. 즉 윤국헌 등의 기록에는 청주전투에 참여한 의승의 주둔지로 안심사만이 등장하지만, 이보다 앞서 영규의 의승군은 갑사에서 출발하여 청주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가산사에 주둔하면서 이곳에서 의승 3백 명 이상을 모집하였다고

29) 곽호제, 「임진왜란기 청주성전투의 의병장 연구」, 『충남사학』 10, 충남대학교 사학회, 1998, pp.55-63.

30) 『선조실록』, 선조 25년 8월 26일.

한다.<sup>31)</sup> 가산사는 왜란 전에 영규가 주석한 곳이었으므로<sup>32)</sup> 의승 모집에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다. 8백 명에 이르는 많은 의승을 이끄는 영규는 당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진 것 같다.

영규는 청주에서 적을 칠 적에 수령들이 혹 물러서면 짚고 있던 큰 몽둥이로 등을 치면서 말하기를, “평일에는 육식하며 잘 지내더니, 이제 와서는 도망갈 생각밖에 없느냐?”라고 하니, 수령들이 감히 누구도 뒤처지는 자가 없었다. 관하에 혹시 영(令)을 듣지 않는 자가 있으면, 엄하게 군벌으로 다스리니, 사람들이 감히 그의 영을 듣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말은 연기 현감(燕岐縣監) 임태(任兌)가 공주 목사 허공(許公, 이름은 頊)을 보고서 한 말이다.<sup>33)</sup>

영규는 1차 금산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청주전투에 투신하였다. 이 기간이 불과 열흘 남짓이었지만, 의승을 2배 이상 증원하는 등 사기가 진작되었다. 의승장다운 결기로 엄하게 수령들을 인솔하였고 마침내 청주성의 왜군들을 몰아냈다. 당시 조정에서는 청주의 전투는 실로 영규가 지휘하고 계획한 사실을 인정하였다.<sup>34)</sup> 또한 영규는 “호령이 엄명하고 곧바로 전진할 뿐, 퇴각함이 없이 한마음으로 싸웠는데, 청주의 왜적이 군사기 아니었다면 이길 수 없었을 것”<sup>35)</sup>이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31) 이석린, 『임난의병장 조현연구』, 신구문화사, 1993, p.148.

\_\_\_\_\_, 「임진왜란기 청주성전투와 의병활동」, 『충북사학』 12, 충북사학회, 2000, p.285.

32) 이석린, 「임진왜란기 청주성전투와 의병활동」, 앞의 글, pp.284-287.

33) 『聞韶漫錄』; 『갑사 표충원』, 앞의 책, pp.217-218.

34) “청주의 전투도 실로 영규가 지휘하고 계획한 것이었다. 조현이 굳이 고집하면서 자기의 말을 따르지 않자 틀림없이 패하리라는 것을 알고 권을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래도 군사를 합쳐 진군하였다. 그리하여 마침내 의열(義烈)로 세상에 일컬어졌으니, 불교가 있는 이래 일찍이 없었던 일이었다. 지중추부사를 추증하였다. 『선조수정실록』, 선조 25년 8월 1일.

35) 『선조실록』, 선조 25년 9월 12일.

승려를 당상관에 제수한 것은 개벽 이래 없었던 일이지만, 특별한 법령을 만들어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에 추증하였다.

가산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안읍(安邑) 밤티[栗峙]가 있다. 이곳은 금산전투에서 순국한 의병장 조현이 왜란 직전에 후율정사(後栗精舍)라는 서실을 짓고 머물렀던 곳이다. 2024년 2월, 옥천군에서는 가산사와 안내의 회남로가 영규와 조현이 의승·의병을 훈련하고 주둔한 곳이라며 ‘영규조현호국로’라는 이름을 붙였다.

### Ⅲ. 기허 영규와 의승 사찰의 위상

오늘날 영규의 위상과 가치는 올바르게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영규에 관해 알고 있는 사실이 많지 않다는 데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영규의 생애와 활동을 의승 사찰과의 연관 속에서 살펴보았다. 그에 관한 자료 대부분이 구전과 설화의 영웅담으로 전하지만, 이 중에서 가능한 한 사실과 실증에 입각하여 생애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영규는 공주 판치에서 밀양 박씨로 태어났다. 언제인지는 전하지 않는다. 출생 시기를 유추할 수 있는 사실이 유팽로와의 교류이다. 영규는 전쟁이 일어난 1592년 이전에 유팽로(1554~1592)를 만났다. 유팽로는 “올해 중에 한 승려가 문 앞에 와서 걸식을 하자 공이 나가 방으로 맞이하여 크게 기뻐하며 여러 날을 함께 이야기 나누었다. 헤어질 때 시를 지어 주었고, 그 후 여러 번 서봉사에 가서 생사를 함께하기를 약속하였다.”라고 하였다. 영규와 유팽로는 첫 만남부터 “기쁘게 여러 날을 함께 이야기 나누었고, 시를 지어 주었으며 생사를 함께하기를 약속하였다.”라고 한다. 이를 통해 보면 두 사람은 동년배였을 것이다. 조

선시대에는 6년 차의 나이를 대개 동갑으로 인식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 많은 사찰에서 갑계(甲契)를 결성하였다. 명칭에서 보듯이 동갑들의 사찰계인데, 사실 동갑이 아니라 6년 차의 조직이었다. 갑계의 이름에는 예외없이 자(子)·오(午)년이 포함되었다. 갑자갑계, 경자갑계, 무오갑계, 병오갑계 등이다. 즉 갑계의 이름은 천간(天干) 열 중에서 하나를 건너뛰고, 지간(地干) 열두 개 중에서 열을 제외한 둘을 남겨 서로 돌아가면서 정하였다. 일반사회에서도 갑계는 대개 6년 차의 구성원으로 결성하는 것이 상례였다.<sup>36)</sup> 그런데 영규와 유팽로의 ‘생사를 함께하자는 약속’은 동갑 사이에서 가능해 보인다. 이 시대에 동갑의 범위가 6년 차라고 하더라도 나이 차이가 있는 사이에서 생사를 같이하자는 말은 상식적이지 않다. 1592년 유팽로는 38세였다. 영규도 비슷한 나이였을 것이다.

즉 영규는 1554년 전후 공주 판치에서 박씨로 태어났다. 이후 언젠가 갑사 청련암으로 출가하였다. 이후 서봉사와 낙가사(落迦寺)<sup>37)</sup> 등에서 수행하였다. 1592년 초 영규는 담양 서봉사에 머물렀다. 이곳에서 탁발 중에 유팽로를 만나 생사를 약속하였다. 이해 초반 계룡산으로 돌아갔다. 5월 8일 유팽로가 서봉사에 가 영규를 찾았으나, 올해 중에 계룡산으로 떠났다는 말만 들었다. 영규는 갑사에 있다가 전쟁 소식을 듣고 5월 무렵 의승을 모집하였다. 이후 7월 7일 수백 명의 의승을 이끌고 금산에 도착하였다.<sup>38)</sup> 영규는 보석사에 주둔하며 9일과 10일, 이

36) 鄭若鏞 原著·김종권 역주, 『雅言覺非』, ‘禊’. 일지사, 1979, pp.219-222, “同庚曰 甲禊, 同年曰 榜禊”라 하여 7干支 内の 연령은 같은 갑계에 소속하고, 오직 동갑만으로 구성된 계는 榜禊라고 하였다. 한상길, 『조선후기 불교와 사찰계』, 경인문화사, 2006, pp.173-181.

37) 이지관, 「義僧將騎虛堂靈圭大師戰場紀蹟碑」, 「(校勘譯註)錦山 寶石寺 騎虛堂 靈圭大師碑文」, 『가산학보』 11, 2003, p.358.

38) “해 질 무렵 성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김충남(金忠男)이 급히 보고하기를 ‘전에 말하던 영규대사가 승려 수백 명을 이끌고 왔습니다.’라고

틀간 금산전투에 참여하였다. 7월 10일 이후 금산전투에서 퇴각하여 갑사로 돌아갔다. 이후 열흘간 대오를 정돈하여 8백 명의 의승을 이끌고 청주로 출병하였다. 7월 20일경 청주 안심사에 주둔하며 청주성 서문 밖 빙고현에 진(陣)을 구축하였다. 7월 29일부터 청주성 탈환 전투를 시작하였다. 8월 1일 전투에서 승기를 잡았는데, 이튿날 새벽 왜적들이 몰래 도망쳤다.

8월 10일 이후 영규는 유성(儒城)에서 조현의 의병과 합류하였다. 금산성을 점령한 왜군을 물리치기 위해 금산으로 향했다. 영규와 의승들은 다시 보석사에 주둔하였다. 8월 17일 금산성 동쪽의 경양산과 연곤평에 진을 구축하고,<sup>39)</sup> 8월 18일 공격을 감행하였다. 그러나 왜군의 반격에 조현과 의병들은 전몰하였고, 영규 또한 순국하고 말았다. 8월 말 공주 계룡면 월암리에 매장되었다.

이상과 같은 영규의 생전 행장을 표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기허 영규의 생전 연보

년 월	내 용	
1554년 전후 추정	공주 판지에서 밀양 박씨로 출생	
1573년 ?	19세(?)에 갑사 청련암에서 출가	
1592년 초	담양 서봉사에 주석하다가 갑사로 이주	
1592년	5월	갑사에서 의승 모집
	7월 7일	금산 도착, 보석사에 주둔
	7월 9일~10일	금산전투에 참여
	7월 11일~20일경	갑사에서 의승 정비

말했다.” 유팽로, 『月波集』 앞의 책, 「일기 7월 7일」; 『갑사 표충원』, 앞의 책, p.174.

39) 나태중, 「의병장 조현과 금산성전투의 재조명」, 『한국군사학논총』 창간호, 미래군사학회, 2012, pp.226-230.

7월 20일경	청주 안심사 주둔. 청주성 서문 밖 빙고현에 진을 구축
7월 29일~8월 1일	청주성 탈환 전투. 8월 2일 새벽 왜군 퇴각
8월 10일 이후	유성에서 조헌의 의병과 합류하여 금산성 탈환 준비. 보석사 주문
8월 17일	의승군은 선봉을 맡아 금산성 동쪽의 경양산과 연곤평에 진을 구축
8월 18일	금산성 공격 중에 순국
8월 말	공주시 계룡면 유평리에 안장

현재까지 전하는 영규에 관한 설화는 206편에 달한다.<sup>40)</sup> 그의 출생과 출가, 행장 등에 관한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글을 쓰거나 말하는 이들은 사실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첨부할 수 있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이다.

(영규는 갑사에 있을 때) 혹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기도 하였다. 대개는 향산법사 휴정(休靜)의 사제인 경기의 의엄(義嚴), 진천의 해안(海眼), 관동의 유정(惟政), 호남의 처영(處英) 및 고사(高士)·현인(賢人), 호남의 제봉(霽峰) 고경명(高敬命), 호서의 중봉(重峯) 조헌(趙憲), 은일처사인 고청(孤靑) 서기(徐起)의 처소에 다녀왔다.<sup>41)</sup>

영규는 갑사 청련암에서 출가하였지만, 스승이 누구인지 전하지 않는다. 당시 실록에서는 속명도 모를 정도로 알려진 바가 없었다. 그런데 위의 기록처럼 후대의 사람들은 그를 서산 휴정의 제자라고 하고 의엄, 사명 유정, 뇌묵 처영과는 동문수학이라고 하였다. 18세기 들어 의승장을 추모하는 표충사와 수충사가 건립되면서 이후 의승 관련 사찰에서

40) 강현모, 「영규대사 설화의 연구 - 설화의 지역적 전승양상과 서사문법을 중심으로」, 앞의 글, p.284.

41) 「壬辰義兵僧將福國祐世騎虛堂大禪師一簋靈主事實記」, 앞의 책, 동국대학교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 <[https://kabc.dongguk.edu/viewer/view?dataId=ABC\\_NC\\_08907\\_0001&imgId=ABC\\_NC\\_08907\\_0001\\_0034](https://kabc.dongguk.edu/viewer/view?dataId=ABC_NC_08907_0001&imgId=ABC_NC_08907_0001_0034)>

영규는 휴정·유정과 함께 삼화상으로 추송되기 시작하였다. 영규를 비롯한 임진왜란의 의승장들에 관한 설화는 백성들에게 구원과 희망의 기쁨을 불러일으키면서 그들 스스로가 설화의 창자(創者)이자 전파자가 되게 하였다.<sup>42)</sup> 사자상승(師資相承)의 법맥을 중시하는 불교에서는 스승이 누구인가를 특히 중시한다. 그러나 영규가 언제, 어떻게 휴정의 제자가 되었는지 전혀 전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에서 다만 그가 의승장이었으므로 조선시대 의승의 대표자이고, 상징인 휴정의 문도로 편입시켰던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그는 표충사의 표충사(表忠祠), 해인사 홍계암의 영자전(影子殿), 보석사의 의선각(毅禪閣), 감사의 충렬원(忠烈院) 등에 휴정, 유정과 함께 나란히 진영이 봉안되며 휴정의 제자로 굳어졌다.

조선시대 역불의 시대에서 승려는 차별과 핍박을 견뎌야 했다. 그러나 민족의 위기 앞에서 결연히 일어나 석장 대신 무기를 손에 들고 구국에 앞장섰다. 유자들은 영규를 살신성인의 유교적 가치를 실현한 구국의 영웅으로 치켜세웠다. “내가 비록 불문에 의탁해 산에 살고 있지만, 술있과 나물을 먹는 것도 모두 나라의 은혜가 아님이 없다. 내 마땅히 하찮은 티끌과 물방울만큼이라도 나라의 은혜를 갚을 날이 있을 것이다.”<sup>43)</sup>라고 했다고 한다. 영규가 유교적 ‘막비왕토사상(莫非王土思想)’을 지녔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출가자의 신분으로 전쟁의 살생에 투신하는 배경에는 불교적 자비심이 내재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명 유정은 자비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임진왜란에 참전한다고 하였다. “여래가 세상에 나온 것은 원래 중생을 구호(救護)하기 위해서이다. 이 왜적들이 기세가 등등

42) 김승호, 「임난시 승장의 설화전승 양상 - 영규대사를 중심으로」, 앞의 글, pp.352-354.

43) 鄭奎漢, 『華山集』 권5, 「騎虛大師忠烈院記」, “吾雖托迹空門居於山 而飯松葉啗薇蕨 亦莫非國恩 吾當有報效涓埃之日”

하니 함부로 인명을 해칠까 두렵다. 내가 응당 가서 이 미친 왜적들을 타일러 흉봉(凶鋒)을 거두도록 할 것이니, 그러면 자비의 가르침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sup>44)</sup> 사명의 스승 서산은 ‘중생을 위해서 왔다가 중생을 위해서 가니(來爲衆生來 去爲衆生去)’라며 참전을 결행하였다.<sup>45)</sup> 그러나 18세기 중엽의 조선은 출가사문으로서의 사명 유정을 지우고, 유가적 충의를 지닌 의승장으로 만들었다.<sup>46)</sup> 사명당의 삶을 중생구제의 방편으로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유가의 논리로 재해석하면서 불자로서의 모습을 철저하게 지웠다.<sup>47)</sup> 참전의 목적과 의미를 분명하게 밝힌 사명의 경우도 이러한데 영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조인영의 ‘승장비문’은 유교의 충과 의, 용(勇)을 앞세우면서도 불교적 자비와 지혜, 해탈을 이룬 인물로 설명하였다.

불교경전의 여러 품과 전등(傳燈)이 기록된 바를 상고해 보면 어찌 이른바 용(勇)과 '열(烈)'과 '충(忠)'이 대사 같은 자가 있지 않겠는가. 비록 대사를 유교에 속한 사람 중에서도 가장 능하기 어려운 경지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하다. 그러나 그가 의병을 창의한 것은 자비이다. 강적을 꺾어 버린 것은 용맹이다. 승전하면서도 패배할 때를 고려함은 지혜이다. 필시 죽을 것을 알면서도 차마 혼자만 살지 않는 것은 선신(善信)이다. 백세(百世)의 강상(綱常)을 보존하고 7척의 목숨을 버리는 것은 잘라내 버림[割捨]이다. 능히 이러한 고행(苦行)을 분별해 내는 것은 깨달음[覺悟]이며, 능히 이러한 오묘한 진리[妙諦]를 이루는 것이 해탈(解脫)이다. 구족(具足)

44) “如來出世 元爲救護衆生 此賊張甚 恐肆殘害 吾當性諭狂賊 俾戢凶鋒 則庶不負慈悲教也” 許筠, 「有明朝鮮國慈通弘濟尊者四溟松雲大師石藏碑銘并序」, 『사명당대사집』, 동국대출판부, 2014, p.472.

45) 김상영, 「뇌목 처영의 의승활동과 그 공적」, 『선학』 60, 한국선학회, 2021, p.39.

46) 한상길, 「사명당 유정의 사문상」, 『정토학연구』 28, 한국정토학회, 2017, pp.350-354.

47) 정출현, 「사명당에 대한 사대부들의 기억과 그 시대적 맥락」, 『고전문학연구』 45, 한국고전문학회, 2014, pp.269-273.

한 상(相)이 막힘이나 걸림이 없이 자유롭고, 진여(眞如)가 무너지지 않으면, 곧 이것이 부처이고, 곧 이것이 무상(無上)의 보리(菩提)이다.<sup>48)</sup>

조인영은 영규의 헌신을 고(苦), 각오(覺悟), 묘체(妙諦), 해탈(解脫), 진여(眞如), 보리(菩提) 등과 같은 불교 용어로 조화롭게 설명하였다. 이 비문을 재촉하기 위해 보석사의 춘담 태연은 한양에 찾아갔었다. 태연이 시를 지어 보내면서 재촉한 보람이 있을 정도로 조인영은 영규의 위상을 불교적으로 정확하게 풀이하였다고 보인다.

영규에 대한 평가와 위상을 논하는 것은 다만 대사 한 사람만의 사례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름조차 전하지 않는 8백 명의 의승이 영규와 함께했다. 많은 사찰이 향화(香火)를 멈춘 채, 나무를 깎고 냇을 갈아 중생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였기 때문이다. 이들의 헌신과 순국은 조선의 분발을 촉구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강원도 도순찰사의 종사관 겸 소모대장(召募大將)[홍인상(洪麟祥)인데, 뒤에 이름을 이상(履祥)으로 고쳤다]의 통문은 다음과 같다. 나라의 운수가 불행하여 왜적이 가득 찼는데 백성들이 전쟁을 몰랐다가 소문만 듣고 흩어졌으며, 마침내 거가(車駕)가 파천하고 종묘는 폐허가 되었으며, 옛 도읍의 산천이 달라졌고 백년의 문물이 모두 왜적이 되는 것이 되고 말았으니, 말이 이에 미치매 원통함이 뼈에 사무치도다. 다행히 하늘의 뜻이 난리를 싫어하고 인심이 한(漢)을 생각하여 창의(倡義)하는 무리가 사방에서 구름처럼 모여들어 회복의 시기를 정하고 기다릴 수 있게 되었다. 임금 없고 부모 없었던 승도들도 오히려 의기(義氣)를 분발하여 무리를 모아 몽둥이로 적을 치거늘, 하물며 도포 입은 우리 선비들은 국가 교육의 은택에 오래 젖어서 임금을 섬기는 대의를 아는 자들임이라. 서쪽 국경은 일찍 추워져 전하께서 반드시 고생스러우실 것이며, 능(陵)에는 풀이 우거져 제사가 오랫동안 끊어졌으니, 이것은 신자(臣子)로서 눈물을 뿌리며 팔을 걷고서 창을 베개 삼아 적을 쳐야 할 때이다. 대저 추운 겨울을 겪어야 소나무·잣나무가

48) 趙寅永, 「靈圭大師殉義碑銘并序」, 앞의 책, p.166.

늦도록 푸르름을 알 수 있고, 결이 좋지 않은 재목을 만나야 연장이 잘 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무릇 우리 충의의 선비가 어찌 힘쓰지 아니하랴.”<sup>49)</sup>

1592년 당시 예조참의로 왕을 호가(扈駕)해 서행(西行)하였던 홍이상(洪履祥, 1549~1615)의 기록이다. “임금 없고 부모 없었던 승도들도 오히려 의기를 분발하여 무리를 모아 몽둥이로 적을 치거늘”이라는 이야기는 영규의 의승들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영규 이후로 전국에서 많은 의승이 쫓기하였지만, 당시 조정까지 널리 알려진 인물은 영규였다. 영규가 시작한 의승 창의를 이처럼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불교계로서는 억불의 시대를 지탱하는 동력이 될 수 있었다.

생사의 의리 무겁고 명성은 가볍다네.  
 행인들 머리 숙여 절 올리고 말도 걸음 멈추니  
 이 길에 언제 가시덤불 생긴 적 있으랴.  
 이곳에선 유생들도 불법을 공격하지 않고  
 신하들도 충애와 녹봉의 영광 말하지 않네.<sup>50)</sup>

이인상이 쓴 「영규비」의 한 구절이다. “이곳에선 유생들도 불법을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유자들은 불교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철폐와 수탈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영규의 비가 있어 불법을 공격하지 않았고, 충절과 순국의 존경심을 표했다고 한다. 이러한 영규와 의승들의 헌신으로 조선불교는 희망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었다.

49) 『大東野乘』, <亂中雜錄> 권2, 壬辰下 10월 6일.

50) “生死義重聲名輕 行人頂禮馬停步 此路何曾荊榛生 儒生解攻清淨教 人臣不辭寵祿榮” 李麟祥, 「靈圭碑」, 『凌壺集』 권2, 앞의 책, p.190.

#### IV. 맺음말

영규는 1592년 5월 갑사에서 의승을 모집하였다. 파죽지세로 강토를 유린하는 왜적을 물리치는 일이 곧 출가수행자로서 증생을 구제하고, 나라를 지키는 본분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앞다투어 많은 승도들이 자원하였다. 이해 7월 수백 명의 의승을 이끌고 금산 전투에 참여하면서 조선시대 의승의 첫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이렇게 영규는 조선 최초의 의승장이 되었다. 의승장의 대표적 인물인 사명유정이 건봉사에서 처음 의승을 결집한 것은 1592년 6월이었고, 평양에서 왜적을 물리친 것은 10월 8일 이후였다.<sup>51)</sup> 국난의 위기에서 누가 먼저 창의(倡義)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다만 영규의 의승 활동은 사명당과는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명당은 선조의 요청을 받은 스승 서산의 뜻에 따라 의승도대장(義僧都大將)이라는 공식적인 직책을 받았다. 영규는 그렇지 않았다. 오직 스스로 창의하고 의승을 이끌었다. 박지원의 말처럼, 영규는 승려로서, 토지나 병갑(兵甲)을 지닌 것도 아니고 부신(符信)을 발급하거나 호령을 받을 처지도 아니었건만, 무리를 이끌고 궤기하였다. 영규는 생전에 의승장의 호칭을 들은 적이 없다.<sup>52)</sup> 당시는 그저 ‘승병패두(僧兵牌頭)’라고 하였다.

51) 조영록, 『사명당평전』, 한길사, 2009, pp.691-692.

52) 영규를 義僧將으로 호칭한 것은 1593년 11월 柳成龍이 최초이다. “민심은 옛 나라를 생각하는 데에 간절하고 의사(義士)는 나라의 쇠망에 분격하여, 적이 서울을 함락한 뒤부터 강개하여 눈물을 흘리며 각자 불러 모아서 회복을 꾀하는 자가 여기저기에서 별떼처럼 일어난 것을 이루 기록할 수 없는데, 이따금 힘껏 싸우고 굽히지 않아서 몸을 나라에 바쳐 절의(節義)가 뚜렷하게 드러난 자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창의사(倡義使) 김천일(金千鎰), 첨지중추부사 고경명(高敬命), 김해 부사(金海府使) 백사림(白士霖), 거제 현령 김준민(金浚民), 충청 절도사 황진(黃進), 경상우도 절도사 최경회(崔慶會), 원임 좌랑(原任佐郎) 조헌(趙憲), 원주 목사 김제갑(金梯甲), 회양 부사 김연광(金鍊光), 진주 목사 서예원(徐禮元),

그는 누구의 명령을 받지 않아도 되는데 1592년 8월 18일, 2차 금산전투에서 이길 수 없는 전투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현과 의병들을 구하기 위해 전장으로 뛰어들었다.

영규의 순국은 어떤 말로도 그 고결한 가치를 다 표현할 수 없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영규와 8백 명에 이르는 의승의 순국은 억불의 조선사회에서 불교의 가치를 되살리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이다. 당시 불교계의 입장에서는 사찰을 이끌어 갈 승도가 일시에 사라지는 위기였다. 그러나 이단으로 내몰던 승도들이 나라를 지켜냈다는 사실은 이 시대 불교의 위상을 제고(提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영규와 의승들이 활동, 주둔했던 의승 사찰들은 억불의 시대에서도 멸절되지 않고, 법등을 유지할 수 있었다.

---

관관 성수경(成守慶), 옥천 군수 권희잉(權希仍), 의승장(義僧將) 영규(靈奎), 해미 현감(海美縣監) 정명세(鄭名洗), 경상우도 절도사 유업잉(柳業仍), 절도사 김시민(金時敏), 동래 부사 송상현(宋象賢), 첨지중추부사 유극량(劉克良), 상운 찰방(祥雲察訪) 남정소(南廷甦), 보령 현감(保寧縣監) 이의정(李義精) 등이 외로운 성을 지키거나 적의 보루를 공격하다가 적의 칼날에 쓰러질지언정 차마 구차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조실록』, 선조 26년 윤11월 14일.

## 참고문헌

- 『갑사 표충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5.
- 『유정집(柳亭集)』, 번역 김종진, 감수 중화법타, 민족사, 2024.
- 조영록, 『사명당평전』, 한길사, 2009.
- 한상길, 『조선후기 불교와 사찰계』, 경인문화사, 2006.
- 강현모, 「영규대사 설화의 연구 - 설화의 지역적 전승양상과 서사문법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31, 한민족문화학회, 2009.
- 곽호제, 「임진왜란기 청주성전투의 의병장 연구」, 『충남사학』 10, 충남대학교 사학회, 1998.
- 김상영, 「뇌목 처영의 의승활동과 그 공적」, 『선학』 60, 한국선학회, 2021.
- 김상일, 「조선후기 사대부의 시문에 보이는 영규대사의 정체성과 형상」, 『태동고전연구』 47, 태동고전연구소, 2021.
- 김성순, 「갑사 사적을 통해 본 의병장 영규에 대한 두 갈래 시선」, 『불교문예연구』 14,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불교문예연구소, 2019.
- 김승호, 「임난시 승장의 설화전승 양상 - 영규대사를 중심으로」, 『동악어문학』 36, 동악어문학회, 2000.
- 이석린, 「임진왜란기 청주성전투와 의병활동」, 『충북사학』 12, 충북사학회, 2000.
- 이철현, 「문헌에 나타난 영규대사의 생애와 활동」, 『갑사 표충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 2015.
- 한상길, 「사명당 유정의 사문상」, 『정토학연구』 28, 한국정토학회, 2017.
- 황인규, 「의승장 기허 영규와 의승의 봉기 - 특히 일본 종군승과 의승의 실체를 중심으로」, 『동양고전연구』 66, 동양고전학회, 2017.

## Abstract

### A Study on the Righteous Monks General Giheo Yeong-gyu and the Righteous Monks Temples

Han, Sang-kil

(Associate Prof., Academy of Buddhist Studies in Dongguk Univ.)

Buddhist master Yeong-gyu was the first righteous monks(Uiseung) general of the Joseon Dynasty. He recruited the righteous monks at Gapsa in May 1592. His righteous monks won the First Battle of Geumsan on July 10, 1592, and drove out the Japanese army in the Battle of Cheongju on August 1. However, he died in the second Battle of Geumsan on August 18th. He was a monk who raised a righteous monks to save the country and achieved great feats, but he died just 40 days after appearing in history. In later years, several monuments were erected in his memory, and memorial services and ancestral rites were held in various places.

In the process, many records about him were produced, most of which are oral traditions and legends that resemble heroic tales that are difficult to believe. In a reality where there are no records of his birth, ordination, or conduct, people created miraculous and heroic tales. This oral tradition was recorded in inscriptions, and those who saw the inscriptions exaggerated and embellished them to create new stories.

No words can express the noble value of his sacrifice. One of them is that his and 800 other buddhist monks martyrdom played a role in reviving the value of buddhism in Joseon society, which persecuted

buddhism. From the buddhist community's perspective at the time, it was a crisis as the monks who would lead the temple disappeared all at once. However, the fact that the monks who had been driven out as heretics were able to protect the country became an important factor in raising the status of buddhism in this era. In this way, the buddhist temples where Yeong-gyu and his righteous monks were stationed were able to maintain their history without disappearing even during the period of buddhist persecution.

#### Key words

Giheo Yeong-gyu, Sa-myeong Yujeong, the Righteous monks(Uiseung), Gapsa-temple, Gasana-temple, Boseoksa-temple, Ansimsa-temple. The Tomb of Seven Hundred Patriotic Martyrs.

논문투고일 : '24. 10. 30. 심사완료일 : '24. 11. 27. 게재확정일 : '24. 11. 27.